

# 김포공항 국제선, 멈춰버린 1년...“그시절 다시 올까요”

### 김포공항 국제선 지난해 3월말 항공기 운항 중단

### 다음달 무착륙관광비행으로 국제선 재개 전망

### 도심공항터미널도 운영 중단...승객들 메시지 뭉클

### “승객들 복직대던 예전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길”

지난 9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는 승객 1명 없이 청소차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분주했다. TV 앞에는 노인들이 지난 7일 실시된 4·7 재보선 관련 뉴스를 시청하면서 목소리 높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입국장 입구에 불이 꺼진 은행은 지점을 이전한다는 안내 문구가 큼지막하게 내걸려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여행용 가방을 든 해외여행객들로 북적이던 항공사카운터는 불이 꺼진지 오래였다. 또 승객들의 신분증 확인과 보안검

색을 받던 출국장 입구도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에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알려주던 안내 화면은 빈 화면만 켜져 있었다. 11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24일부터 국제선 청사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김포공항이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지가 이미 1년이상이 지난 것이다. 김포공항 국제선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 중국 베이징·상해, 대만 옌산 등 5개 지역을 운항하던 수도권 관공

항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항공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항 내 편의시설이 중단된 지는 반년 가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정부가 인천공항에만 국한됐던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을 김포와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있도록 협의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나면 오는 5월께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을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인지 평소 불이 꺼져있던 면세점도 직원들이 출근해 상품수와 품목 등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단 1년이 지났고, 현재까지 항공

기 정상 운항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국제선 청사의 운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항공 관련 시설은 김포공항뿐이 아니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8일 찾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좌석을 모두 한곳으로 치웠고, 이곳에서 입출국수속을 받았던 항공사카운터도 모두 불이 꺼진 상황이었다. 터미널 한쪽에 자리한 나무에는 예년 승객들이 적어놓은 메시지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엄마 아빠 이집트 여행” “친구들과 동창 모임” 등 승객들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인천공항행 직통열차에 탑승하기 전 설렘으로 가득찼던 당시 기분을 작성한 것이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행 직통열차에 탑승하는 승객에 한해 항공기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출국심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곳에 입주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6개 항공사로 승객들의 탑승수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1일 직통열차 이용객이 95% 감소하면서 이곳의 운영도 중단됐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

객들의 입출국 수속을 담당하는 직원 42명은 현재 임시열차에 투입된 직통 일반열차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역무 매니저는 “외국인들과 이용객들도 복직대던 예년과 달리 현재는 승객이 없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하루 빨리 되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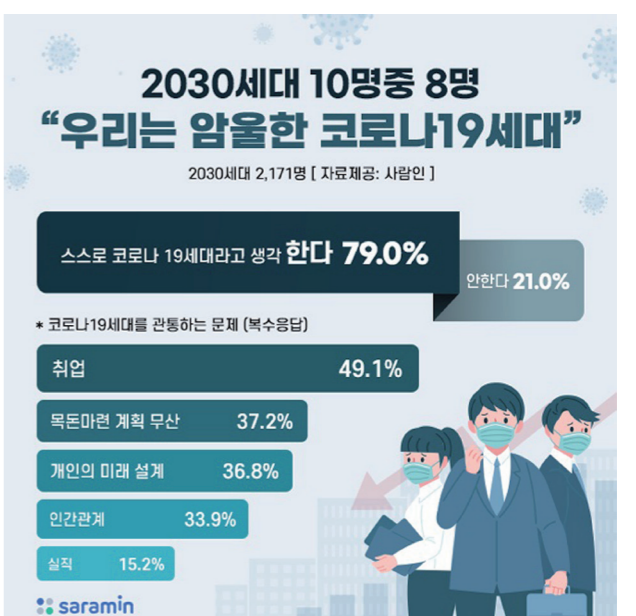
20주 연속 오른 휘발유값...1리터당 1535원 휘발유 판매가격이 20주 연속 올라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붙어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1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1원 오른 1535.0원/ℓ으로 20주 연속 상승했다.

## 20~30대 10명 중 8명 “우리는 코로나세대”

###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 못 하고 있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코로나19 세대’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하면서 청년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코로나19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20~30대 2171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코로나19 세대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이 ‘나는 코로나19 세대’라고 답했다. 스스로를 코로나19 세대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구직자와 직장인의 이유가 조금씩 달랐다. 구직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어서’(55.8%·복수응답)라는 답변이 1위인 반면 직장인은 ‘비대면 전환,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중심에 있어서’(40.7%)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세대라고 답한 1716명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었다. ‘취업’(49.1%·복수응답)은 코로나19로 인해 잃은 것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난으로 목돈마련 계획 무산’(37.2%), ‘개인의 미래 설계’(36.8%), ‘인간관계’(33.9%), ‘직장(실직)’(15.2%), ‘연애’(14.7%) 등을 잃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의 71.9%는 실직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20~30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은 ‘스스로 IMF,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보다 더 암울하다’고 생각했다. 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염 우려’(41.5%·복수응답)였지만 ‘장래’(32.3%), ‘생활비’(32%), ‘취업실패’(30.6%) 등 다소 암울한 상황들이 뒤를 이었다. 20~30대 중 기존보다 ‘부채가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36%였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필요해서’(63.4%·복수응답)가 가장 많았 ‘생계수단 유지를 위해서(공과금 등)’(43.4%),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17.7%), ‘해고가 돼서’(13.1%) 등이 뒤를 이었다. 빚은 평균 1300만원가량 늘어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8.5%는 ‘코로나19 여파는 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21.8%였고 ‘최소 3년 지속’이 20.9%를 차지한 데 반해 ‘올해 이내(2021년 연말)에 안정될 것’이라는 답은 18.8%로 가장 적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첫 진출을 하지 못하거나, 해고·고용불안 등을 경험한 코로나19 세대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높다”며 “정책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이마트 동광주점 28일 폐점...상무점 이어 두 번째

### 이마트 측 “동광주점 효율성 제고 차원서 영업종료”

###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 대면 매출 급감’도 주요 원인

광주지역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이 개점 23년 만에 문을 닫는다. 동광주점 영업종료는 지난 2019년 12월 상무점을 폐점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이마트 대형 매장은 광주·광산·봉선점과 순천·여수·목포점 등 총 6곳만 남게 됐다. 11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2년 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리뉴얼 진행을 통해 일부 대형 매장을 ‘소형 포맷’의 그로서리(식료품)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그로서리 매장은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호남권 노브랜드 매장은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점을 비롯해 전북 군산, 익산, 전주 송촌·삼천 등 총 5곳이 성업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월계점 등 10개 점포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한 결과 평균 26.7%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올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성과 효율성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경영전략에 따라 1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그로서리 매장 확대, 비식품 매장 효율화, PP(Picking&Packing)센터 확대 등의 대규모 리뉴얼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을 닫는 동광주점은 지난 2019년 초 고객휴식 공간 조성, 패션 상품군 축소, 신선매장 개선 등을 통해 재단장을 했지만 실적 증대에는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주점 근무 인력은 총 40여 명이며, 임차점포를 제외한 직접 고용 인력은 면담 후 인근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마트 동광주점 영업종료 원인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대형소매점의 ‘매장 대면 매출’이 급감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월24일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

조6054억원으로 전국(62조 8111억원) 매출의 2.6%에 그쳤다. 2019년(1조6634억원) 대비로는 3.5% 줄어든 가운데, 판매액은 2019년(-3.1%), 2018년(-0.4%)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 같은 판매액 감소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배달판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은 766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38억원(-1.8%)이 감소했다. 전국(33조7778억원) 판매액 대비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이마트상무점 폐업이 전체 매출규모에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0년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 52.3%, 대형마트 47.7%로 나타났다. 이중 백화점은 전국 44.8%보다 판매 구성비가 7.5%포인트 높았지만 대형마트는 전국 55.2%보다 7.5%포인트 낮았다. 최이슬기자

## 봄 빨리 오자 에어컨 매출 ↑...여름 제품 수요 폭증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더 팔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일찍 찾아오자 여름 상품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에어컨·서큘레이터·수영복 등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에어컨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 늘었다. 최근

에어컨과 함께 여름 필수 가전이 된 에어컨과 함께 여름 필수 가전이 된 서큘레이터는 168.7% 매출이 늘었다. 이동식 에어컨 역시 144%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있었고 많이 덥지 않아 에어컨을 수요가 적었다”며 “작년에 에어컨을 사지 않은 고객이

올해 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여름 과일 매출도 늘고 있다. 잡과는 작년보다 매출이 9.2% 올라갔다. 수영복 매출은 지난해보다 100% 늘었다. 이른 봄부터 에어컨 수요가 빠르게 늘자 이마트는 여름 가전 얼리버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에어컨 행사에 돌입했다. 4월 한 달 간 삼성·LG 등 올해 신상품 에어컨을 삼성·KB카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 할인과 금액대별 추가 상품권을 증정한다. 점포별로 보유 중인 에어컨 기존 모델과 진열 상품 등 총 800여대를 최대 30% 할인한 특별가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엘지 멀티형 에어컨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전기레인지, 공기청정기 등을 동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상품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갤러리 에어컨 행사 모델 구매 시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를 추가 증정한다. 오유나기자